

‘광주형 에너지분권’ 추진…마을 단위 전기 생산·공유

올해 총사업비 103억 투입해 시민참여형 생태계 조성 거점센터 15곳 운영…신재생에너지융복합 1160곳 시행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공유하며 마을 단위의 자립을 이끄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2월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전환미을 거점센터 운영,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 강화, 주택 햇빛발전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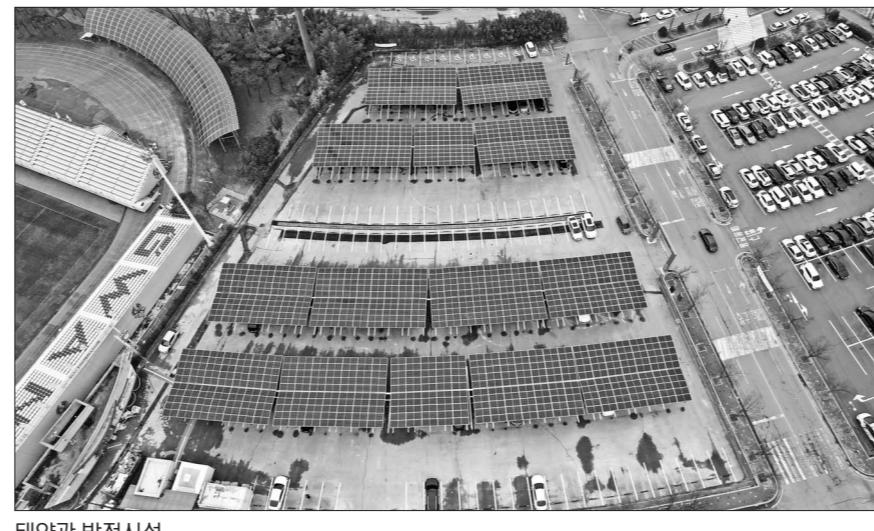
광주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 접점 확대’와 ‘체감형 보급’에

두고 올해 총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상 속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먼저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미을 거점센터’ 15곳을 운영한다. 에너지 전환미을 거점센터는 시민들이 모여 기후 위기를 학습하고, 에너지 절감과 생산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전환에 시작되는 공간이다. 개별 기구를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일반 협동조합이 공동부지 등



태양광 발전시설

총공사비의 50% 이내(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

입해부터 10세대로 완화, 진입장벽을 낮춰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특전(인센티브)도 한층 강화된다. 광주시는 ‘가정용 배란다 태양광(1㎾ 이하)’ 설치 때 1회당 1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신규 정책을 도입해 적극 홍보·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 사업과 연계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84곳에 태양광 설치비를 매칭 지원하는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인과 마을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의 전환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국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 등 총 81억9000만원(시비 17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과 상가, 공공건물이 혼

재된 구역 1160곳에 태양광(400㎾)·태양열·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특정구역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염주실내수영장·경사면 등 유후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도 시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순두영 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에너지 전환의 성과는 시민이 일상에서 필요성과 혜택을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니 태양광부터 대규모 융복합 사업 까지 시민과 접점을 최대로 넓혀 광주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코스피 5% 급락…4거래일 만에 5000선 붕괴

‘매파’ 워시 연준 의장 지명에 글로벌 자산시장 쇼크 외인·기관 매도·개인 4조원대 매수…은값 30% 폭락

코스피가 2일 5% 이상 급락하면서 5000선이 무너졌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자 금·은 등 귀금속이 폭락하고 국내·국제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74p(1.95%) 내린 5122.62로 출발해 274.69p(5.26%) 내린 4949.6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5084.85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대를 달성한 이후 4거래일 만에 다시 50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지수는 5000선이 깨졌지만,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면서 5196.71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다시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해 한때 4933.58까지 밀렸다.

코스피 급락으로 오후 12시31분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 후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한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되며 5분 경과 후자동 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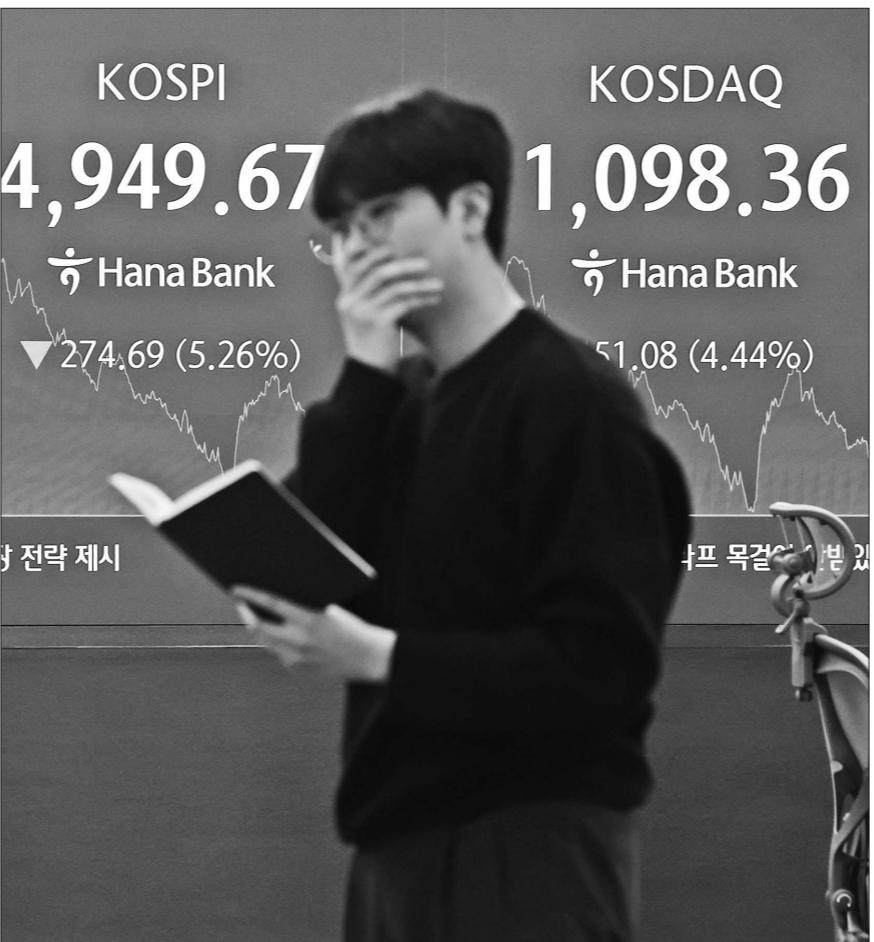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5161억원, 2조2127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올해 최대 액수인 4조587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3579억원 매도 우위였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는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거래소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악세 여파로 인해 5000선 아래로 떨어진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되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4.69p(5.26%) 내린 4949.67p, 코스닥 지수도 51.80p(4.44%) 내린 1098.36p장을 마쳤다.

코스피 급락으로 인해 2026년 2월 2일 4,949.67p를 기록한 이후 4거래일 만에 50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4.69p(5.26%) 내린 4949.67p를 기록한 이후 4거래일 만에 50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지수는 5000선이 깨졌지만,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면서 5196.71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다시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해 한때 4933.58까지 밀렸다.

코스피 급락으로 오후 12시31분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 후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한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되며 5분 경과 후자동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5161억원, 2조2127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올해 최대 액수인 4조587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3579억원 매도 우위였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는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같은 날은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5.9달러(31.37%) 폭락한 78.53달러에 정을 마감했다. 금 가격도 10% 넘게 떨어졌다. 이런 영향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17% 내린 5만

2698.36. 대만 가권지수는 1.37% 떨어진 3만1624.03을 나타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02%)와 선전종합지수(-1.83%) 흥종 항셍지수(-2.84%) 등도 하락했다.

국내 증시는 장중 패닉셀링으로 인해 특히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달러화 강세 및 금리 상승, 그에 따른 주식·闺금속 등 자산가격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에 대한 금융 시장의 초기 반응은 부정적인 모습이다”며 “이번 주에도 귀금속 폭락 여진 속

조트는 지역별 특색 있는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합리적인 회원자를 통해 고장 방문이나 여행 수요를 촉진하도록 구성됐다. 노란우산은 숙박·혜택 외에도 가입자를 위한 경영·생활 전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분야 무료 상담과 경영지원,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상 제공, 국립암센터 정밀형 건강검진 할인 및 건강검진 플랫폼 최대 49% 할인, 마케팅·AI 활용 등 역량 강화 교육과 헬링 교육, 쇼핑·전자제품·차량 렌트 제휴, 채권행사 대행 서비스, 공제기금과 각종 보험·재해공제

구조 등을 포함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daum.net

작년 전남 방문 관광객 6456만명

65만명 증가…24시간 체류 전국 평균보다 7시간 많아
접근성 개선·콘텐츠 고도화…2030년 1억명 달성 총력

지난해 전남을 다녀간 관광객은 총 645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5월과 10월에 집중되는 계절 편중 구조, 콘텐츠 복제와 시설 위주 개발에 따른 관광 브랜드 경쟁력 약화, 관광 서비스 종사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이후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2026년 7102만명, 2030년 관광

객 1억명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

시켰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형

체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목포~보성선 철도

등 SOC 확충을 관광상품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와 연

계한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과 지역

화폐 환급형 반값여행을 통해 재방문

·자소비를 유도하고, 웨케이션 마케

팅으로 청년층 장기 체류를 확대할 방

침이다.

펫 트레일, 파크골프 퍼키지, 리마

인드 웨딩여행, 남도해양 관광열차 등

비수기 대응형 특화 관광상품을 운영

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관광 플랫폼

‘JN투어’ 고도화를 통해 이동·체류·

소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관광을 추진한다. 더불어 무안국제공

항 재개항에 대비한 무비자 입국 연장

과 국제 크루즈 유치 확대로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해양·섬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 감소로 나타

났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5월과 10월에

집중되는 계절 편중 구조, 콘텐츠 복

제와 시설 위주 개발에 따른 관광 브

랜드 경쟁력 약화, 관광 서비스 종사

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이후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2026년 7102만명, 2030년 관광

객 1억명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

시켰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형

체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목포~보성선 철도

등 SOC 확충을 관광상품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청년층 장기 체류를 확대할 방

침이다.

펫 트레일, 파크골프 퍼키지, 리마

인드 웨딩여행, 남도해양 관광열차 등

비수기 대응형 특화 관광상품을 운영

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관광 플랫폼

‘JN투어’ 고도화를 통해 이동·체류·

소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관광을 추진한다. 더불어 무안국제공

항 재개항에 대비한 무비자 입국 연장

과 국제 크루즈 유치 확대로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해양·섬 관광